

〈주요개념〉: 공동체, 빈곤, 이웃관계, 토박이, 복지, 나눔

백사마을의 공동체문화:

도시빈민의 골목문화

조옥라*

1. 들어가며: 한국의 도시빈민지역

한국 인류학에서 도시빈민지역 연구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달동네로 대표되는 빈민지역 연구는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도시빈민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다루고 있었다(정자환 1982; 박계영 1982; 김은실 1984; 황익주 1985; 정채성 1989).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서울 안의 대규모 빈민 밀집지에서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도시빈민층의 노동방식, 지역조직, 가족관계들을 분석했다. 이들 빈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구조 속에 편입되어 있는지 그 방식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러한 도시 빈민층에 대한 관심은 이들 지역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강화되어진 갈등으로 이어져 도시빈민 지역운동과의 연계(조옥라 1990),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는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도시복지의 문제(조문영 2001) 등으로 이어졌다.

소위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인 서울의 ‘달동네’는 제3세계 도시화의 한 유형을 보여줬다. 제3세계의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내 빈곤층의 집단 거주를 확대해왔다고 지적되고 있다(이효재 1983). 서울에서도 대규모 무허가 정착지의 형성은 이러한 도시의 팽창과정 속에 저소득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서울의 하천부지 아니면 고도가 높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었다. ‘달동네’는 바로 무허가 정착지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 지역들은 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불량주택이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고 고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된 지역들이었다.

1980년대 ‘달동네’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주민들이 ‘재개발’에 의하여 재생산 기반이 취약해져서 빈곤을 이어가는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달동네 주민들이 발달시켜온 사회관계망이 이들의 직업, 이웃관계, 사회관계 등에 어떠한 특성을 만들어왔으며 이들의 빈곤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분석되었다. 즉 80년대 논의는 빈곤이 발생하고 유지되고 지속되는 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빈민에 대한 관심이 ‘빈민문화론’(Lewis 1974: 135)이 의미하는 계층구조의 공고화라는 문제로 이어지면서 다른 사회과학자들과 정책적인 토론의 장에 인류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¹⁾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 가족에 대한 추적 연구(조은 2012) 조사에 의하여 여전히 주목된다. 한 가족의 25년 생애에서 비록 생활의 장은 달동네에서 임대 아파트로 이동되었지만 불안정한 직업, 자녀들의 이혼,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 등의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빈곤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1) 신명호(2013: 138)는 빈민지역에서 관찰되는 피상적 현상을 ‘빈곤문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빈민 계층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0년대의 문제의식인 빈곤의 재생산이 실제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시점에서 ‘달동네’의 문제는 주택정책 당국자인 서울시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불량주거지를 현대적 주거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서 ‘재개발’이 여전히 주요한 화두이지만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또한 다시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 밀집 거주지가 현재와 같이 고가의 고층 아파트로 전환될 때 저소득층인 원주민이 살 수 없다면 진정한 재개발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정책입안자들 사이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노원구 중계분동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달동네, 백사마을의 재개발 계획은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되었다. 백사마을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는 재개발 정책’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백사마을의 일부를 보전하는 “중계분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1). 이 사업은 1) 60~70년대의 주거문화 생활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 구릉지, 소형 필지 및 골목길을 유지하며, 2)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길 등 주거문화 유지와 새로운 거주시스템 구축으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한다.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에서 발견되는 ‘문화 생활’, ‘마을 공동체’가 이제 보전해야 될 가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여기서 출발한다. 2011년에 만난 서울의 저소득층 거주지를 연구한 미국인 문화지리학자가 “한국의 지역 공동체는 이제 도시빈민들이 사는 달동네에서만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라고 한 질문과도 연결된다. 이 질문은 최근에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남에 대한 배려나 통합이 낮게 나온 통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즉 이 논문은 달동네에서 보전해야 될 대상으로 부가되는 ‘마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현장 자료²⁾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석사과정 학생 두 명, 학부생 한 명과 함께 연구자가 백사마을에서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수집한 것이다. 현장 연구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함께 백사마을 전체에 대한 지도 작성, 특히 빈집과 현재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지역들을 참고하여 전체를 구획짓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주요 인사들을 소개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주요 관찰대상을 구분하여 관찰하거나 심층면접할 수 있는 영역을 확정지었다. 우선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여성 연구보조원은 복지와 여성 주민에 대한 관찰을, 남성 연구보조원은 상업지구와 공장지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민 면담을, 그리고 연구자가 주로 복지 일반과 주요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백사마을에서 유치원으로 쓰였던 곳의 교실 하나를 빌려 연구거점으로 활용했다. 한 연구보조원은 연구기간 중 연구거점에서 취침도 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심층면접을 병행하면서 주민들의 활동에 참여하여 기존의 자료를 보강했다. 유치원의 교실이 거점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도 연구팀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 기간을 통하여 현장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했으며, 면접과 관찰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들이 팀을 이루어 매주 한 번 이상 현장에 가서 진행했다. 관찰은 일지로, 면담은 녹음 채록으로 자료화했다.

2)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자료들은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생활사 연구 프로젝트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다. 전체 연구는 『104마을』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2012년 12월에 출간되었다.

2. ‘공동체’란?

한국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농촌 마을에서 오랜 농경 생활 속에서 발달된 공동체 문화는 이해준(1996: 80)도 지적하듯이 다양한 계모임과 마을제사, 혼례와 상례 등 공동체적 의례와 결합하여 발달되어 왔다. 한국 농촌의 사회적 관계는 양반, 상민 그리고 지주와 소작이라는 계층적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연대의 전통을 이어왔다. 비록 그 입장과 처지가 다르지만 마을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적인 유대를 갖고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어왔다. 농촌 마을에서 공동체적 관계는 일을 함께 하고 애정사를 돕고 마을 일을 함께 하면서 공동 운명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정을 맺는 관계(김주희 1982)이면서 상호간에 치밀하게 계산된 교환관계(조옥라 1981)로서 유지되었다. 이광규(1984)는 여기서 대립과 조화가 함께 작용하는 사회관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이념형은 김왕배(2000: 292)가 힐러리(Hillery 1955)를 인용하여 요약하듯이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의 유대 등의 세 요소를 포함한다.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발견되는 ‘위친계’, ‘품앗이’, ‘마을제사(동제나 당제)’ 등은 상부상조의 이웃관계를 체계화한 공동체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조직은 농경 생산과정의 필요성과 사회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이 공동체적 의례를 통하여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공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생활공간의 공동체적 원리는 마을 주민 간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이를 통하여 상부상조하는 농촌 마을의 지역 공동체가 형성, 유지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조직이나 이념적 지향은 농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전통 농경

생산방식의 쇠퇴와 더불어 약화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에서 논의되는 공동체는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 시간적 연속성 등을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니스벳 1985: 103, 최협 1986: 18-19에서 재인용). 이러한 공동체 이념은 공동체 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근대 사회의 이기적인 측면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성숙되고 합리적인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근대적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결사조직체들을 만들었지만 인격적, 공동적 유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농촌의 지역 공동체를 떠난 현대 도시에서도 갠즈(Gans 1962)가 지적했듯이 ‘공통된 윤리관이나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 ‘특정한 하위 문화를 공유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혈연과 지연(이웃관계)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근린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이웃관계에 기반한 공동체가 지적되고 있다. 김형국(1989:36)은 달동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감싸고 또 밥도 나누어 먹은 옛 ‘미풍’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가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병상련하게 만드는 좋은 구실”인 것이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가 의미하는 공동체적 지향은 상부상조를 통한 상호의존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에 대한 지적과는 달리 한국에서 ‘공동체의 재발견’(최협 1986; 김성국 1998: 68) 논의는 시민 사회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 최협 외(2001: 12-13)는 협동조합운동 속에서는 항상 공동체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여 공동체적 사회나 결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운동의 한 전

형이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보고 있다. 최협 외(2001: 178)는 생협이 도시 공동체의 재건과 형성을 위한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생협이 조합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사고와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도시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미영(2006: 10-11)도 신자유주의와 글러벌리즘의 시대에서 공동체가 문제되는 것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개인적 친밀감, 정서적 깊이, 도덕적 몰입, 사회적 결속 및 지속성을 요구하는 공동체적 이념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의 대상인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³⁾라는 통칭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서로 도와주는 이웃관계가 발달되어 있다. 21세기 서울의 백사마을의 이웃관계에서 ‘마을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웃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적 연대, 구체적인 기능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백사마을의 이웃관계가 도시빈민 집단 거주지 등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가난한 생활이 공동체적인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연대가 얼마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사회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마을 공동체에서 기능하는 공동체적 조직과 의례 없이 근린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 논의가 가능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3. 백사마을의 공간적 의미

백사마을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구 산 104번지) 산기슭 언덕에 자리 잡은 산동네이다. 2012년 5월 현재 중계본동 주민

3) KBS 다큐멘터리 <3일>은 2011년 1월 30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백사마을을 소개하면서, ‘가난하지만 정이 있는 곳’이라 설명한다.

센터에 보고된 자료는 1,536세대 3,28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빈집이 많고, 이곳에 살면서 신고되지 않은 인구도 많고, 살고 있지 않아도 살고 있다고 등록된 인구가 많아 정확한 숫자 파악은 힘들다고 한다.

백사마을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로 골목들이 언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다. 고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집이 들어서고 수평적으로는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을 주민에게 마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역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가게들을 의미한다. 수평적인 교류는 많지 않아 골목을 공유한 이웃끼리만 수평 왕래를 한다. 마을은 현재와는 달리 언덕 중턱부터 아래로 발달되어진 곳이다.

서울시 도심부에서 집단적으로 강제철거되어 이주된 주민들은 지역별로 몰려 집을 지어간 것으로 보인다. 1967년 용산, 이문동, 석관동, 남대문 등의 지역에서 강제로 트럭에 실려 온 초기 정착민은 트럭에서 내린 산자락에서 출신 지역별로 천막 하나에 4가구씩 살게 되었다고 한다. 용산구 신계동 미나리깡에서 철거되어 온 사람들은 현재 6통에, 이후 4통과 5통에는 서대문과 이문동에서 철거되어 온 사람들이 처음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한 트럭에 실려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철거, 이주했기 때문에 여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기도 했다. 실제 각 통에는 처음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맡게 되고 그 통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통칭하게 된 면도 있다고 한다. 현재 4, 5, 6통은 다른 통보다 생활여건이 좋았으며, 집단적 이주를 해온 전통이 강해 주민들끼리 연대가 강하다.

백사마을에서 공간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소위 ‘토박이’들이다. 이들은 서울 전역에서 집단적으로 강제 철거당하여 배당된 언덕에 처음 천막을 친 사람들이고 이 지역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정착 과정에서 고생한 기억을 갖고 있다.

현재의 백사마을은 8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통의 가옥구조와 특성은 이 지역의 변화 과정 속에서 계속 바뀌어 왔다. 현재 작은 규모의 공장들은 대부분 1통에 펼쳐져 있으며 마을 입구에 해당되는 8통에는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그 외에는 작은 주택들이 고도에 따라 연이어 지어져 있다. 아랫집 지붕이 윗집의 작은 담과 이어져 윗집 마당의 테두리가 되기도 한다. 골목길들도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보다는 가옥 사이의 좁은 연결도로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부딪치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이 좁은 골목이 가로로 실낱같이 연결되어 있다. 백사마을에서 집들은 산기슭을 둘러싸면서 촘촘히 들어서 있다. 인근 주택지에서 떨어진 고립된 산기슭에 강제이주된 후 천막을 쳐 생활을 시작한 초기 정착민은 시멘트 벽돌(‘보로꾸’)을 직접 찍어 집들을 지었다고 한다. 정부에서 준 시멘트를 주변 개울물과 모래와 섞어 주민들끼리 서로 도와 집들을 지었다고 한다.

시내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거리를 얻기 힘들어 일자리 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정보를 주고 받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집단적으로 해결해왔다고 한다. 같은 동네에서 철거해 온 사람들이 뭉쳐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과 싸우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풀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토박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원래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웃들이 알고 자신들에게도 중요하다. 처음 정착했던 통에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유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친목계 등을 만들어 연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이 백사마을이 어떠한 공간인가를 지속적으로 재현시키고 있다.

1) 재현된 공간

이들 토박이에 의하여 백사마을의 공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첫째, 백사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트럭에 실려 산기슭에 버려진 사람들이 시작한 동네이기 때문에 가난뱅이 동네라는 점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가 절망의 대상이라기보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동네로의 변환은 이들 주민들이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주민들끼리의 패싸움이 많고 험악했던 시대를 증언하는 경우(74세 전 유치원 원장)도 있다. 남대문(양동)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칠어 싸우고 곧이어 지역을 떠났다고 증언하는 다른 토박이도 있어 백사마을이 안정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별 대안이 없는 주민들은 천막을 공유한 이웃들과 서로 도와 집을 지었다고 한다. 서울시가 각 집에 배포한 시멘트를 인근 하천의 모래와 섞어 시멘트 벽돌을 함께 찍고, 서로 도와 벽을 세워 집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건축 일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주기도 하여 전형적인 ‘민중건축’의 형태를 띤 주택단지가 되었다. 이 지역의 주도로인 마을 입구에서 언덕 위까지 연결되는 길도 주민들이 직접 곡괭이질을 하여 닦았다고 한다.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열흘 일하면 밀가루 한 포대 주는 방식으로 일을 지켜 이 지역을 정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74세 주민).

두 번째는 백사마을이 번성했던 마을이었다는 설명이다. 70년대 백사마을에 이농민들이 들어와 주택지가 커졌는데 이곳이 공장지대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에 이 지역의 저렴한 임대료와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수출용 니트 편직 공장인 ‘요꼬’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가내수공업 형태로 공장에서 기술을 습득한 주민이 기계를 집에 들여놓고 한두 집씩 시작했다가 전 지역으로 퍼져갔다고 한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요꼬 공장이라고 할 만큼 번성했다고 한다. 이들 공장의 번

성은 더 많은 노동력을 유입하게 하여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집에 방을 새로 이어들어 젊은 노동자들로부터 방세를 받았다고 한다. 80년대는 집 한 채를 쪼개서 대여섯 가구에게 세를 줄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층이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상업지구가 70년대 후반부터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사마을은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비록 빈곤한 서민들의 집단 거주지이지만 매우 활발한 곳이었다고 한다. 이 시절의 백사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새벽 2시까지 불이 훤히 켜지고, 공장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다니는 번성했던 곳”이다. “야채가게에도 한 차 실어다 팔고, 다음날 또 가야 하고, 노점상도 엄청 많았던 곳”이다(80세 야채가게 주인).

세 번째, 백사마을이 “참 살기 좋았던 동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들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이 주택지로서 자리 잡고, 공장이 들어서고, 시장이 발달되어 가는 동안에 주축이 되었던 ‘토박이’를 중심으로 농촌에서와 같이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상호부조를 하고 있다. 지역 내 이웃 간에도 서로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 먹고 노는 행사를 계속했다고 한다. 이웃 사람들이 외부에서 하는 결혼식에 버스를 대절하여 모두 참석했다는 32세 청년의 회고담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시골 같은 마을’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이웃관계가 있다.

네 번째, 주민들이 ‘백사마을’이라고 인식을 갖게 되는 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이룬 곳이라는 애착과 공통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70, 80년대 서울의 건설 현장에 함께 나가 일한 경험도 공유하고 있었다. 70대 여성노인 중에는 강북강변도로를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주민도 여럿 있었다. 주민들이 일상에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나 급전 조달도 이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일과 경제적인 문제를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해결하고, 그 중심에 토박이 중에 능력이 있는 주민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2년

조사 당시에 남아 있는 토박이들 중 일부는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의 역사와 같이하는 이들 토박이 출신 유지들이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백사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다른 지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러한 백사마을의 공간에 대한 해석은 이 지역이 다른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차별화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이 대도시 저소득층 거주지로서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서울 중심지로부터 60년대에 강제 철거되어 온 빈민들이 이 지역 형성의 출발점이었다(1967년 철거). 둘째, 이 지역은 대부분 국유지였으며 단계적인 불하를 거쳐 이제는 사유지가 되었다. 셋째, 초기의 이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시로 새롭게 들어오는 이농민들이 싼 거주지를 찾아서 들어와 지역이 확대되었다. 넷째, 이들 저소득층의 노동력에 기반을 둔 중소 공장, 부업, 건축 관련 직업군이 형성된다. 다섯째, 이들 지역은 서울의 재정비 과정에서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철거한 위에 고층 아파트들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백사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가난하지만 정이 많은 곳’, ‘시골 같은 도시 마을’과 같은 이념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면은 재개발에 해체되어진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재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백사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해체가 임박한 이 지역에서 과거의 마을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자 회의에 대한 자격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012년 가을에 ‘애향회’가 구성될 정도로 백사마을을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고 이 지역 성격을 규정짓는 데 ‘좋았던 마을’에 대한 언술이 자주 등장한다. 둘째는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가옥주에게 집을 팔고 그대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외부 가옥주에게는 마을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셋째, 현재 골목 단위로 서로 교류하는 이웃들의 역사가 깊다. 이웃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토박이’로서 정보교환과 놀이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마을 유지들의 마을 거주 역사와 다른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크다는 면이 주목된다.

백사마을에 대한 이러한 공간적 의미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주민들의 모임을 통하여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빈민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모임들

2012년에 관찰한 백사마을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은 주로 노인들이다. 이들이 마을 입구의 가게 주변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이 지역의 낙후된 주택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개발계획이 확정된 다음이라 거의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빈집들이 마을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 황량한 빈민촌으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골목에 따라 사람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활기도 있다. 특히 집과 집 사이 공터에 정성스럽게 재배되고 있는 야채들은 이곳의 주민들의 부지런함을 보여준다. 빈민촌의 겉모습과 달리 골목이 살아 있고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하

다. 골목길과 작은 공간을 이용하여 만나는 주민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상부상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을 분석하려고 한다.

1) 장소: 골목, 가게 앞과 빈집

이웃들이 만나는 장소는 주로 골목이다. 날씨가 나쁘지 않으면 나이 든 노인들은 집안에 있기보다 골목에 나와 소일을 한다. 골목에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다. 오다가다가 잘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큰 길과 작은 골목이 교차되는 지역에 있다. 같은 골목의 사람들이 약속이 없어도 하나 둘씩 모여 3~5명 정도 모여 이야기를 하고 지낸다. 일이 생기면 자리를 떠나 모임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주민들은 달라지기도 한다. 주민들은 같은 골목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서로 불러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백사마을이 특이한 것은 이러한 비정형적인 이웃모임이 큰 길을 따라 구역마다 많다는 점이다. 3통, 1통, 6통 등 골목 안에 모여 있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때 동시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야 6명 정도이며, 보통 3~4명 정도로 작은 이야기와 놀이 모임이 도처에 있다. 2통에서는 남성 노인들이 길가에서 조금 들어간 지점에 간이 정자를 만들어 모이기도 한다.

이들에게 골목이란 공간은 자신의 주거, 사회적 관계, 경제적 조건의 주변성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8평 남짓한 방에서 나와서 골목 안 층계나 의자에 앉음으로써 그 골목이 바로 자신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함께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빈집이 많아져서 빈집의 방 하나를 주인의 허락을 받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7명의 여성 노인들이 모이는 6통 한

빈집은 오랫동안 같은 골목에 살면서 친목계를 하다가 인근 아파트로 이사한 친구 집이다. 남아 있는 이웃 친구들이 한 달에 만원씩 경비를 내고, 집 열쇠를 3명 정도가 공유하면서 한겨울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사랑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커피와 차, 그리고 과자들을 놓아두고 있었다.

비슷하게 빈집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는 예는 아파트, 공장 등에 경비원을 하는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근무가 끝난 시간에 모여 한담을 나누고 화투를 치면서 소일한다. 이곳도 이사 간 이웃 친구가 제공한 것이다. 6통에 다른 빈집도 주인의 양해 아래 노인들이 모여 일종의 노인정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골목과 빈집 외에도 빈번하게 주민들이 모이는 곳은 오래된 가게 주변이다. 특히 과거 번성했던 시장터인 8통에는 오래된 가게 주인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모여 있다. 페인트 가게 앞에는 항상 3~5명의 여성 노인들이 모여 한담하고 있었다. 야채가게 앞 간이의자에도 여성 노인들이 3~5명이 모여 있어, 주변 할머니들의 집합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과거 목공소였던 가게에는 남성 노인들이 모인다. 이러한 현상은 8통을 벗어난 가게 근처에서도 볼 수 있다. 2통의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구멍가게 앞의 의자에도 남성 노인들이 화투를 치면서 소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만나는 공간은 개방된 곳으로 주변 동네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다. 여기에 누구나 끼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2) 모임의 성격

골목이나 가게 앞 간이의자에 앉거나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이웃들은 ‘심심하니까’,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집 밖으로 나와 골목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일상적인 한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3통 골목길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들의

사례에서 보면 거의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3명에서 5명까지 할머니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각자 이 지역에 이주해 온 시기는 달랐다. 또 마을에 이주한 당시에는 생활을 위해 일을 하러 다니느라 늦은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교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한다. 요즘음과 같이 동네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이라고 한다. 여기에 오는 여성 노인들은 거의 모두 3통의 한 골목에 살고 있지만 한 할머니는 2통에 살고 있다. 이 할머니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 세 집이 이사를 가버렸고, 다른 한 집에는 공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이 살고 있어 정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3통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여성 노인들은 오후 3, 4시쯤 골목에 나와 보는 것이며 사람이 없으면 큰 소리로 ‘누구 할머니’ 하고 부르기도 한다. 3통 골목길 빈집 계단과 바로 앞 길가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앉아 노는 것이다. 그리고 해질 무렵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심심해서 정을 나누기 위하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3통 골목의 여성 노인들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데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운 여름날 이웃 친구가 마을 아래 쪽에 갔다 올라 오면 평소에 함께 소일하던 친구가 집에 재빨리 가 얼음 물을 가져와 내주기도 한다. 먹을 것이 생기면 언제라도 나누어 먹는다. 순대 같은 별식이 생기면 한 사람에게 한 조각밖에 안 돌아가도 갖고와 함께 먹기도 한다. 드물지만 집으로 이웃 친구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특별한 별식을 장만하기보다는 커다란 양푼에 보리밥과 냉장고에 보관해 둔 갖가지 나물을 넣고 비벼 둘러 앉아 함께 떠먹는 식이다. 손님을 위하여 일부러 차려놓은 음식은 아니지만 같이 먹는 식사에 술 한잔도 곁들이며 서로 간에 정을 나눈다. 먹다 남은 음식은 집에 싸 가 다음날 식사로 먹기도 한다. 집에 가 밥을 먹거나 놀러 가는 이웃집은 주로 혼자 살고 있는 집이다. 모이는 여성 노인 중에도

남편이나 자식, 손주들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수는 혼자 살고 있고 있었다. 3통의 골목 문화는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에게 적접함을 달래고 음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음식을 해서 먹는 모습은 백사마을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통 길가 골목길 모퉁이에서는 간단한 찌개를 끓여 교류가 잦은 같은 골목 여성 노인들이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자주 한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백사마을의 이웃관계를 더욱 친근하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담벼락을 따라 조성한 긴 밭에서 기른 야채를 친구에게 주기도 한다.

6통의 빈집에서 만나고 있는 여성 노인들은 골목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으면서 거의 매일 만나는 이웃 친구들이다. 이 골목은 모두 용산의 미나리깡 지역에서 이곳으로 강제 철거된 원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늦게 온 경우도 이 지역에 자매 등 친척이 있어서 이사온 예이다. 빈집에서 만나는 이들 모임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이들이 이용하는 집은 빈집이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이웃이 먼저 집을 열어 놓고 다른 여성 노인들은 수시로 가서 쉰다. 이 빈집은 주택이기 때문에 골목 길에서 만나는 노인들과는 달리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7명의 회원은 매달 만원을 내 전기료, 상하수도료 외에도 다과와 음료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과 일에 관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한다. 한모퉁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바보 화투’, 단순화한 고스톱을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한 골목에서 살면서 ‘일자리’도 함께 얻어 일했다고 한다. 2012년 당시 새마을 근로사업을 함께 12일 동안 하여 일당으로 16,670원씩 받았다고 한다. 평생 노동일을 해온 이들 여성 노인들은 거리미화 일을 ‘노는 듯이 일을 하여 용돈을 벌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뿐 아니라 근처 절이나 교회 행사 그리고 관공서 행사에 참가하여 기념품을 함께 얻기도

한다. 이때 받은 과자가 이 놀이터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 회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같은 친목계 회원이다. 빈집의 주인도 친목계원이다. 주인은 함께 놀지는 않지만 집이 백사마을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빈집 근처 밭에 심은 야채에 물 주기 위하여 자주 들른다.

이웃관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백사마을은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러한 이웃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교회나 절 등의 인근 교회시설의 행사에 대한 정보도 모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 통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도 옆에서 거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도 바로 이 이웃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노인들은 현재의 백사마을이 자신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초라하고, 불편한 것은 많지만 수입도 거의 없고, 친척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한 노인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 친구가 항상 있는 이 지역이 고향과 같은 곳이다.

3) 토박이의 역할

앞에서 백사마을의 주민들이 골목문화를 만들고 적적함을 달래고 정보와 정을 교류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동네가 다 거지 동네라 모두 일하러 갔으며”, “일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한다”는 마을에서 이웃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을 확장할 수 있는 고리로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골목문화가 정착되는 데는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토박이 주민들의 기여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임원영(2012)이 ‘선한 권력’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 이웃들에 비하여 정보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슈퍼)를 운영하는 L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연탄창고

를 치워 남성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노인정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셋째 수요일에 의사와 간호사가 무료 진료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통 빈집의 여성 노인 공동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72세 여성은 철거민으로 시작해서 쌀가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과거 부녀회장으로 지역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도 있으며, 여러 친목계를 조직 운영한 여성이다. 이 여성이 자신의 친목계원 집을 골목 친구들이 쓸 수 있도록 주선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15명이 계원인 친목계의 계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15명 중 현재 백사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지만 모임은 백사마을 내 식당에서 하고 있었다.

시장터인 8통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80세 야채가게 주인 여성은 백사마을이 번창했을 때 수입을 많이 모았지만, 현재는 형식적으로 가게를 열고 있을 뿐이다. 이 여성은 자신을 ‘스타’라고 소개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입담 좋게 모인 여성 노인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웃들은 이 가게주인이 만물박사라고 한다. 모르는 것이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선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제공할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골목 안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주위 공터에 많은 채소를 키워 주변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공급자 내지 해설자인 이웃을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집단적 모습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골목 안, 가게 앞, 모퉁이 등에 모이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백사마을 내 소식들은 빠르게 전파된다. 연구자들이 언제 왔는지도 대부분 알고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항상 들리는 곳이며, 무엇인가를 나누어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골목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이웃 관계들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백사마을 이웃관계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중심 인물들은 이 지역에 거주한 시간이 길고, 사회경제적인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이들의 자원은 단순한 자원의 소유 여부를 넘어서는 경험과 기억까지도 포함한다. 야채가게 할머니, 2통 할머니, 6통 할머니들은 모두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다. 산 중턱에서 맨손으로 집 짓고, 땅도 늘려서 짓고(80세 여성노인), 수도가 없어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고, 서로 도와주면서 웃으면서 지냈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1974년 6세에 백사마을로 가족이 이주한 44세 남성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그는 이곳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일터에 가고, 물도 한 우물에서 먹고, 같은 자리에서 빨래를 하고, 함께 모여 먹고 놀았다”고 한다(조옥라 외 2012: 287). 특히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이 다 가다시피 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마치 가족과 같이 한 동네에서 정스럽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이들 골목, 이웃 모임을 주도하는 주민들에 강하게 남아 있다. 동네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길을 닦는 것과 같은 공동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모두 갖고 있었다.

6통의 72세 여성 노인은 자신이 6통 부녀회 회장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항상 설날 내복을 선물한 것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6통 입구에 마을 공동수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 관리를 부녀회에서 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이 쌀가게를 하면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지내고, 자신은 이 지역 사람들과 친목계를 하고, 이 지역 불교사찰의 신도 회장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했으며, 돈 거래도 많이 했지만 큰 비난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고 한다.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여성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우선

해서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면담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아야 한다고 전화를 걸고 골목에서 이름을 부르니까 함께 빈집을 쓰는 6통 여성 노인들이 곧 나타났다.

야채가게 주인 80세 여성 노인과 쌀가게 72세 여성 노인, 그 외에도 목공소 주인 74세 노인 등은 모두 백사마을 형성사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철거민 천막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집을 지어 마을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공장이 번성했던 70, 80년대 시기를 모두 지나오면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지역사회의 자원 공급과 배분에 관여해왔다.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은 백사마을의 고립성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 중심지와 떨어져 있고 교통도 좋지 않았던 백사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을 모두 지역 내에서 해결했다고 한다. “여기 사람들 이 동네 쌀가게 있고 연탄집 있으면 그 집에서 다 사고. 이 마을 사람이 동네 놔두고 판 데 가서 사 먹지는 못하잖아”라고 68세 여성이 구술하듯이 고립된 상가들은 다른 주민들에 비하여 상당한 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이들은 자신 소유의 사는 집 외에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자녀교육을 시킨 후 다른 곳에 주택을 장만했지만 여전히 백사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백사마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장사도 되지 않는 야채가게를 하면서 ‘동네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골목문화가 여전히 이웃 간의 담소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들이 유지되는 데는 이들 주도적인 토박이 주민들의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정스러운 관계’에 대한 신념이 작용하고 있다. 이들 토박이들은 자신의 가게나 집 근처에 몇 개의 간이의자를 놓아두는 등의 사소한 고려를 하면서 이웃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이들이 실제 골목 문화의 공동체적 모습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 다양한 지원-‘우리는 다 얻어 먹어요’

백사마을은 사진작가들의 빈번한 방문⁴⁾과 함께 다양한 공적, 사적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추위가 오기 전 연말행사 중 하나가 이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연탄을 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회사 직원이나 학생들의 모습이다. 추석을 전후하여 백화점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는 행사도 정례화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대기업 사회봉사팀, 백화점, 종교 단체 그리고 일반 개인들의 봉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때로는 이 동네에서 자기 돈 갖고 과자 사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은 일상적이다. “우리는 다 얻어 먹어요”라고 한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떡이라도 얻으면 다른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당연한 곳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준다’라는 정보는 재빨리 골목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함께 행사에 가 얻어 와 동네로 돌아오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얻어 먹는다는 것이 생활의 일부다.

실제 백사마을의 주민들은 가난하다. 2012년 10월 중계본동 주민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중계본동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서 삼 분지 일을 포함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114세대 190명이 해당되어 백사마을 주민의 5.7%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대부분이 차상 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직·간접의 지원을 받고 있다.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원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한다. 특히 여름이면 새는 지붕, 허물어지려고 하는 담장 등이 많아 주민센터가 신청을 받아 구청이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백사마을을 검색하면 뜨는 기사는 대부분 이와 같은 어조를 보여 준다. 2014년 4월 15일에 방문한 한 여행블로거 ‘푸른하늘(kangs 59)’는 백사마을이 공존, 상생의 의미도 돌아볼 수 있는 감성여행지라고 했다.

나 시에서 집수리를 해준다고 한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요구하면 그냥 나가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원받는 영역은 광범위하다. 수급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그 외 통장 등을 통한 추천에 의하여 의료지원도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정기적인 의료진의 방문이 화, 목요일에 있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주민들이 진료, 처방을 받고 있다. 계절에 따라 목욕차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목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백사마을에서 가장 상징화된 주민지원으로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평화의 집’과 겨울철 ‘연탄지원’이 있다. ‘평화의 집’은 1987년 H대 Y교수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48평의 건물에 식사공간, 사무실, 주방 등을 갖추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0~40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은 설립자 Y교수의 개인 후원과 다양한 후원자 집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충당한다. 대기업이 후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의 상가나 대리점에서 기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점심 준비에 봉사하는 분들은 학교, 성당, 교회 등에서 오며 백사마을의 주민들도 참여한다. 8통 반장인 61세 여성은 공장을 경영하면서 평화의 집 후원을 확대하는 데 과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사용하고 있었다(임원영 2012: 54-56). 점심을 먹은 주민들도 설거지와 뒤처리를 도우며 청소를 마친 다음 외부의 봉사자와 한담을 나누기도 한다. 평화의 집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다. 상임 봉사자 A씨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혼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겨울철 연탄지원은 2004년 H목사가 세탁소 주인의 협조로 장소를 얻어 후원받은 연탄을 주민들에게 배달해주는 지원사업이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수급자 등에게 200장씩 지원하고 있다. 전체 1200가구 중 600가구 정도가 연탄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 봉사에 참여하는 층은 기업 봉사팀, 대학생 동아리팀, 그리고 개별 참여자까지 망라된다. 좁은 골목에 리어카를 끌고, 각자 개인이 2~3개의 연탄을 지게를 지어 집에 쌓아준다.

이 두 가지 지원은 모두 외부 후원자가 시작하여 광범위한 후원회와 자원봉사자 팀을 조직하여 정례적으로 주민들에게 핵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일부 마을 주민이 주민센터와 함께 후원자와 주민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부 후원자의 백사마을 주민지원 은 명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교회의 봉사 팀이 와 음식을 대접하고 생필품을 나누어주는 예들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일상적으로 많다. 많은 주민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식사와 지원을 받고 있다.

개인 지원의 한 예로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곳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살았던 P씨가 1995년부터 매년 말복 때 동네 어른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있다. 다른 후원 없이 형제와 친척들이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고 있었다. 많을 때는 300명까지 대접했다. 하지만 2012년 8월 4일에는 70, 80명 정도의 노인들이 왔다. P씨는 마을 복지회관 앞 전봇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초대합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를 맞아 우리 가족의 작은 사랑의 점심을 준비하오니 많이 오셔서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행사 포스터를 붙였다. 어른 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여 이 행사를 계속한다고 한다. 그는 2002년 이곳을 떠나 상계동으로 이사했지만 백사마을의 정겹고 인심 좋은 분위기를 그리워하며 자주 온다고 한다. 아직까지 누가 가도 더운 날 물 한잔 줄 수 있는 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한다.

모두가 가난하고 일만 있으면 무엇이냐 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동네로서 서로 돕는 전통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사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다. 백사마을에 공적, 사적 지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주민들의 태도라고 생각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평화의 집에 와 점심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맙다고 하고 잘 먹고 빨리 자리를 뜬다. 연탄배달을 받은 주민도 봉사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잘 한다. 백화점 봉사팀이 와 선물을 나누어줘도 잘 받고 인사한다. 선물을 받기 위하여 주변 친구들과 다투는 예는 별로 보지 못했다. 2012년 겨울에 종점 근처 교회에서 동네 사람들의 초상화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전시 시작을 위한 행사를 하면서 화가는 초대 손님을 위하여 떡을 장만했다. 이때 주민들이 소식을 알고 너무도 빨리 많이 와 준비한 떡이 금방 없어지기도 했다.

지원에 익숙해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백사마을은 생존하기 좋은 동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다음은 복지 지원을 받고 혼자 살고 있는 88세 여성노인의 일상이다 (조옥라 외: 281).

홍씨 할머니는 아침과 저녁은 주로 집에서 혼자 먹고 점심은 종점 근처 평화의 집에서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 11시 반이면 나갈 채비를 하고 평화의 집으로 슬슬 걸어 내려간다. 우체국이나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는 날엔 조금 더 빨리 나서서 일을 본 후 종점 편의점 근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가 평화의 집으로 간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후에는 쉬었다가 주로 오후 3시부터 3통 골목 모임에 참여한다. 약속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면 이야기가 시작된다.

노원역 근처 교회는 수요일과 일요일 오전에 간다. 종점까지 내려가면 마을에서 7~8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 차를 타고 이동한다. 목요일은 노원역 근처 성당에서 사랑의 도시락이 오는 날이다. 11시 되기 전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목요일만 되면 할머니는 이를 기다린다.

6. 결론: 백사마을 ‘공동체’

백사마을이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서 명명되고 ‘가난하지만 서로 돕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된 동네’라고 지칭되는 것은 앞에서 ‘토박이’들이 전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지적하는 살기 좋았던 ‘백사마을’이라는 개념적 이상향과 현재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노인들 사이의 골목 안 이웃관계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백사마을에서 관찰되는 공동체 문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시골 동네 같이 서로 돕고 산다’는 말은 마을 단위의 배타성을 내재하고 있는 전통적 공동체와는 적용방식에서 다르다. 백사마을의 형성과정에서 함께 철거당해 와 자신들의 힘으로 건설해온 동네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오고, 농경생산의 품앗이 관계에 기반을 둔 농촌 공동체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웃관계에서 가부장적 상하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중심인물은 있지만 위계는 없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원에도 모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연탄과 백화점 선물세트와 같은 것은 미리 선정된 주민들에게만 전달되지만 대부분의 선물들은 선물 증정 당시 이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받는다. 이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동네 주민인 것이다. 지독한 고생을 함께한 동질성이 강한 연대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 동질감은 마을 주민 간에 현실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평등성을 부과하는 것 같다. 주민들 간의 차별적인 면이나 위계적인 관계는 없다.

가난을 받아들이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을 백사마을은 만들어왔다. 백사마을의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가 유지되는 데 토박이들의 역할이 크다. 이들이 모임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다. 그 뿐 아니라 마을의 정스럽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고생한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함으로써 이 지역의 공동체적 이념이 지속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몇 명의 지역 유지와 같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조차 이웃과 함께 하는 가난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교류에서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거의 없어 보였다. 너나 나나 모두 같은 동네 사람인 것이다. 조금 더 지식이 많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을 주변에 줄 수 있다. 백사마을의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을 떠난 사람들도 계속 이 지역을 방문하게 하고 이곳 출신 청장년층에도 ‘고향’같은 곳으로 기억하게 하고 있다.

이웃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주민들은 모두 남녀 노인들이다. 백사마을에서 서로 돕고, 정과 음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웃관계가 공동체 문화로 추상화되는 과정은 애경사를 함께 해온 전통과 관련이 있다. 가족 생애주기의 주요한 시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명절을 챙겨 동네 어른을 대접하는 것은 농촌 마을의 관습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많은 사람이 죽고,⁵⁾ 떠나갔기 때문에 장례도 동네잔치같이 치르고, 일만 있으면 모두 모이는 일도 이제는 없어졌다고 한다. 이제 이러한 의례적인 참여는 기억으로 남아 현재의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골목의 모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토박이’인 이들 비공식 리더들은 이미 떠난 사람들과 마을을 연결시키고 있다. 노원구 인근 지역으로 집 팔고 이사 간 주민들 중 일부는 거의 매일 이 마을로 출근하듯이와 가게 앞 간이의자나 계단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행사에도 따라간다. 이 지역을 떠난 친목계원들도 과거 이웃들과 계속해서 계를 하면서 자주 방문하고 있었다.

백사마을의 이웃관계가 공동체적 관계로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5)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였고, 열악한 주택환경 그리고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85세 전 장의사).

면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앞에서 대부분 도시빈민층 연구에서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감싸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은 모두 지적되고 있다(김형국 1989). 우선 현재 대부분의 저소득 밀집지역은 이미 재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웃관계의 밀착도는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사마을과 같이 철거민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재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백사마을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서울에서 몇 개 안 남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인 빈민지역이라는 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이웃관계의 내용은 다른 도시빈민지역과 유사하지만 그 중요성은 다르다.

2012년에 관찰된 백사마을이 다른 기존의 도시빈민 연구지역과 차별화되는 측면은 이 지역의 이웃관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주민이 이미 생산력이 마모된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사당동의 사례 연구(조은·조옥라 1992)에서 보듯이 도시빈민지역에서 가장 활동적인 이웃은 계원이면서 노동팀원이면서 하청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층의 이웃관계에 대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다.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치는 일도 많았다. 여기에 비하여 백사마을에서 이웃관계는 말 그대로 사회관계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교류가 많고 이웃끼리 정스럽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물론 사소한 말다툼은 있지만 심각한 갈등적인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

두 번째로 지적할 만한 것은 바로 ‘토박이’들의 역할이다. 현재 지역에 남아 비공식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토박이’는 모두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다. 슈퍼, 쌀가게, 야채가게, 목공소(전) 주인들이다. 이들은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빈민지역의 유지는 부동산 업자, 건축 십장, 부업 하청업자 등이 많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들 유지들은 대다수의 세입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했다. 그뿐 아니라 성공한 마을 유지와 일반 주민들과의 격차는 컸다.

사당동 도시빈민에 관한 선행연구(조은·조옥라 1992)에서 이웃관계는 갈등과 의존관계로 지적되고 있는 데 반해 백사마을의 이웃관계는 갈등적인 요소가 많지 않았다. 두 지역이 20년의 시대적 차이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나온 차이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8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압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 백사마을은 이미 절반 가까이 집이 비어 걸모습은 낡고 허물어져 가는 동네 같다. 집을 판 주민 대부분은 백사마을을 떠났다. 집을 판 뒤에도 그 집에 계속 사는 일부 주민도 있지만 토박이들도 많이 떠났다. 현재 관찰되는 골목문화는 남아 있는 주민들의 이웃관계이다. 이들 주민들에게는 주변이 황폐되었기 때문에 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중요한 것이다.

백사마을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토박이를 제외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도 수입도 거의 없으며 철거 후 임대아파트라도 얻으려고 남아 있다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집 무료급식이나, 의료봉사, 행사 정보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놀이와 정보, 나눔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생계의 위협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외부에서 지원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하다. 이웃 친구에게 가장 화를 낼 때는 기념품을 주는 행사에 말도 없이 혼자 가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얻은 물건이나 음식은 대부분 동네 친구와 함께 갖고 소비한다.

주거환경은 비록 열악하지만 직장이 없고 자식이 없거나 마을 외부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많고, 적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 지금의 백사마을은 가장 살기 좋은 공간이다.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사회연대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사회연대는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끊임없이 이웃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노인들의 골목 모임은 주민들에게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생계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는 곳으로 백사마

을의 공동체성에 핵심적인 재생산 기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백사마을의 공동체는 농촌 공동체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공동체적 이상의 실현을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웃관계에 적용하고 있는 예로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동체적 관계는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 형성되었다기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 해체되면 골목도 사람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⁶⁾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15일, 논문심사일: 2014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7일

참고문헌

김미영

2006 『현대공동체주의』,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성국

1998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 양종회 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서울: 나남출판, pp. 15-72.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서울: 한울.

김은실

1984 “한국도시민민의 성격에 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주희

1982 “품앗이와 정,”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심설당,

6) 2013년 추진되고 있는 백사마을의 재개발에서 보전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곳 거주민들의 ‘가난하지만 서로 돕는 공동체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건을 갖춘 주택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pp. 126-142.

김형국

1989 『도시시대의 한국문화』, 서울: 나남.

구자인

1996 “공동체운동의 조류와 시사점,”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 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서울: 도서출판 발언, pp. 222-241.

박계영

1982 “무허가 정착지 주민의 경제행위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사업 타당성조사』.

서울역사박물관

2012 『104마을: 중계본동 산 104번지』, 2012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신명호

2013 『빈곤을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이광규

1984 “농촌 사회 내의 대립과 조화의 양상,” 『정신문화연구』 봄호, 정신문화연구원, pp. 171-184.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서울: 민속문화사.

이효재(편)

1983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서울: 한길사.

임원영

2012 “도시빈민의 생존 방식 속에 나타난 내부의 권력: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사례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임희섭·양중희(편)

1998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서울: 나남출판.

정자환

1982 “서울 사당2동 정착지의 도시화과정,” 『성심여대논문집』 13: 117-

138.

정채성

- 1989 “난지도 주민의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성격,” 『한국문화인류학』 21: 367-399.

조문영

- 2001 “‘가난의 문화’ 만들기: 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조옥라

- 1981 “인류학적 관점으로 본 한국농촌부락연구,” 『한국문화인류학』 13: 53-68.
1990 “여성인류학적 시각에서 본 도시빈민 지역운동: 서울 사당2동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2(1): 111-140.

조옥라 외

- 2012 “104마을의 구역화된 생활과 골목문화,” 『104마을』, 서울: 서울역 사박물관, pp. 88-235.

조은·조옥라

- 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은

- 2012 『사당동 더하기 25』, 서울: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최협

- 1986 “한국 사회, 공동체, 공동체이념,” 『한국사회학』 20: 15-33.

최협 외

- 2001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서울: 선인.

한국문화인류학회(편)

- 2008 『문화인류학반세기』, 서울: 소화.

한상복

- 1980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 현대사회와 문화 전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41-181.

황익주

- 1985 “한국 건설업의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Gans, Herbert J.

- 1962 *The Urban Villagers: Group and Class in the Life of Italian-Americans*, New York: Free Press.

Hillery, George A.

-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Lewis, Oscar

- 1974 “Some Perspectives on Urbaniz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Mexico City,” in Aidan Southall, ed., *Urban Anthropology*, pp.125-138.

〈Key concepts〉: community, poverty, neighborhood, natives, solidarity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among Urban Poor in Baeksa Village Based upon Alley Culture

Cho, Oakla*

This paper discusses how urban poor develop communal relationship in Baeksa Village and analyzes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field data collected from February to November, 2012. Field site is the district being famous as the last chanty town in Seoul. It has been started as the place for urban poor whom the government evacuated from central city in 1967. There are many neighborhood meetings in shallow alleys and in front of small shops. It is very common to see old women and men gather either playing card or sharing food or just talking. These meetings and social interactions seem to make this community alive and cheerful despite of shaking outfit of community which had a view of half demolishing because of deserted houses and piles of garbages.

I suggest that the image of Baeksa Village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stories narrated by first comers who emphasize the harshness to build up a village by their bare hands and communal cooperations to overcome from the beginning. The present neighborhood which

*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ology, Sogang University

still emphasizes ‘good community’, is based upon frequent visits and sharing food and information. Some natives from the beginning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provider and mentor to other neighbors. They are the ones who repeat stories of good old days when people helped each other in the most harsh period and people joined to most family and community rituals together. These narrations not only make this community special but also make them take an agent role to help neighbors. Their role is crucial to link urban poor to various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volunteers. I argue that their roles are reflecting their strong identity as urban poor in Baeksa Village.

